

초등생 평생 구강건강 초석 마련

도교육청, 내달부터 11월까지 학교 구강보건교육·개별 맞춤형 구강진료 지원 추진

초등학생의 평생 구강건강 초석 마련을 위해 학교 구강보건교육과 개별 맞춤형 구강진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학교에서의 구강보건교육 활성화 및 개별 맞춤형 구강진료 지원사업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생의 충치유병률은 12.48%로 나타났다.

3년여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주춤했던 학교에서의 충치 후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질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의 활성화 강조와 함께 현재 구강보건교육 분야의 건강증진중점학교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초등학생 구강진료 지원사업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구강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초등학생 구강진료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의회와 지원과 관심을 통해 초등 4학년 학생을 대상(1만4,400명, 지자체 지원 등 중복지원 제외)으로 구강질환 예방 등 개별 맞춤형 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학생의 평생구강건강을 위해 전북교육청과 전라북도치과의사회는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수차례의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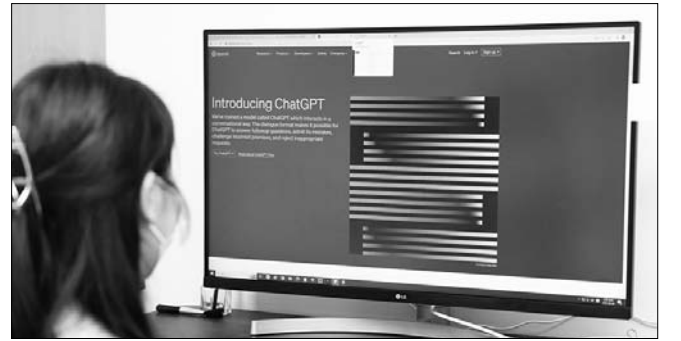
초등 4학년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스템(앱)을 활용해 협약 체결·지정된 도내 치과 병(의)원을 검색 및 전화예

약 후 불소도포, 치면세균막 검사, 치아홈메우기, 치석 제거, 치아우식 초기 치료, 구강보건교육 등 개별 맞춤형 진료를 1인당 4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는 구강 진료를 끝난 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구강진료 결과를 시스템(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구강진료의 만족도도 높아질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제간과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과 구강건강 유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 구강보건교육 활성화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가 '챗GPT(Chat GPT)'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올바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AI와 함께 'AI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인간·AI 협업 윤리강령

교수·학생 활용 원칙 담아

챗GPT 등 확산 따라 교육현장서 접목하고자 선제 대책 마련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챗GPT(Chat GPT)'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올바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AI와 함께 'AI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북대가 챗GPT 등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전북대 교무처 주관으로 수립된 이 가이드라인은 AI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활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로 '생성형 AI인 챗GPT'를 사용해 초안을 만들고 가이드라인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인간과 AI가 함께 만든 윤리강령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학생과 교원이 지켜야 할 AI 7대 기본 활용원칙, 과제 부여 단계에서부터 제출까지 과제 수행 단계별 AI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과 AI 활용 및 결과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AI 활용원칙으로는 △목적에 부합한 AI 활용, △효과적인 AI 활용 방법 모색, △자기 주도적 AI 활용, △활용 결과의 정확성 검토, △AI 활용 시 정확한 출처 표기, △AI의 윤리적 활용, △기술 발전에 맞춘 지속적인 학습 방법 개선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교원의 AI 활용원칙으로는 △AI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AI 활용에 대한 동등한 기회 부여, △AI 활용의 명확한 기준 제시, △AI 활용과

제에 대한 공정한 과제 평가, △AI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조, △AI의 윤리적 사용교육 실시, △AI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방법의 지속적 연구·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과제 수행 단계별 AI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과제 수행 단계를 '과제 부여, 과제 수행 결과 검증, 과제 제출' 등 4단계로 구분해 학생과 교원이 준수해야 할 AI 활용 교수·학습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구성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I 활용 및 결과 검증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해 내용의 정확성과 목적의 부합성, 윤리성 확보는 세 가지 측면에서 AI 활용 및 결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동원 전북대 교무처장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구성원이 AI 활용원칙과 교수·학습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올바르게 활용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대는 향후 AI 활용 기본원칙과 AI 활용 교수·학습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AI가 혁신적 교수·학습 도구로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챗GPT 등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방안 정책연구 내용 등을 반영해 추후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지역 기초학력 증진·취업 활성화

전주대, SF교육그룹과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이하 전주대는 (주)SF교육그룹(대표 박규일, 이하 SF교육)과 지역 기초학력 증진 및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을 지난 9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SF교육의 독자적인 교육콘텐츠 및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초학력 증진과 졸업생 취·창업 활성화 이바지할 계획에 있다.

SF교육은 보유 교육 프랜차이즈 공부방 브랜드, SF튜터아카데미, SF미러클랩산 및 교회 영어도서관 브랜드 SF영어도서관을 전주대 재학

생과 졸업생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대는 학생들의 취·창업 활성화 및 SF교육그룹의 독자적 교육 콘텐츠로 지역사회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교육 관련 지역사회 발전 협력 상호 시너지와 실현 및 실습 기자재 공동 활용, 취업 정보와 구인 및 구직 정보 교류 등 교육과 취·창업 분야에 다양한 협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에 관해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전북지역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단위 학교와 교육청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구체적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F교육그룹 박규일 대표는 "이번 전주대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기초학력 증진, 대학생 취·창업의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올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안내

도교육청, 26~30일

응시원서 교부·접수

시험은 8월 10일 시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지난 9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te.gokr, 교육소식-알림사항 고시/공고)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의 응시원서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교부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교부기간과 동일하나 현장접수는 초졸 응시자의 경우 전주·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본관 1층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중졸·고졸 응시자는 도교육청 본관 1층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방문 접수가 어려운 응시자와 발달(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 누리집(https://kged.gokr)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기를 권장한다.

다만 온라인 접수의 경우 1일 단축된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온라인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을 위해 희망하는 사람은 원서접수를 위해 최종학력증명서, 증명사진 2매,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험장소는 7월 28일 오전 10시 공고하며, 시험은 8월 10일에 시행된다. 또 합격자발표는 9월 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합격자 교부는 전북교육청 고객센터를 통해 방문 수령하거나 우편발송을 희망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주소로 일반우편 발송된다.

/김재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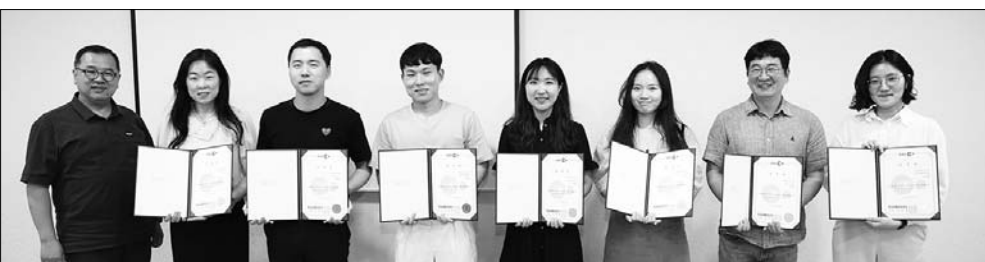
전주대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펩푸드 스타트업 3곳과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는 펩푸드 스타트업 3개 회사와 지난 7일 전북 테크노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펩푸드 제조 스타트업 회사는 (주)썬더필(윤소정 대표), 펩산업 브랜드 큐레이션 기업 (주)유엔에스(이서원 대표), 학술연구 용역 등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사 (주)지에스아이(이정상 대표)로 펩 휴머니제이션 바이오 펩푸드 신약원 협약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이다.

전주대학교 바이오 기능성 식품학과를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MOU는 바이오 펩푸드 영양인식 제조와 관련한 학술적인 역량을 통해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훈 기자



지난 9일 국립전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전북 EBS(eBS English) 활용 교사 위촉식 이 열린 가운데 위촉된 교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BS 콘텐츠 활용, 학교 현장 영어교육 내실화

도교육청, EBSe 활용교사 10기 위촉식·간담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EBS와 연계한 학교 현장의 영어교육 내실화를 꾀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국립전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전북 EBS(eBS English) 활용 교사 위촉식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 및 간담회는 EBSe 콘텐츠의 학교 현장 활성화 및 EBS와 전북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 EBSe 활용교사 9명(초

등 7명, 중등 2명)과 EBS 창의융합교육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위촉식과 함께 EBS와 전북교육청의 2023년 EBSe 및 AI플랫폼 주요 사업에 대한 협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전북 초·중등 EBSe 활용교사들의 2023년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EBSe 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EBSe 활용교사들은 하반기부터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AI 플랫폼·EBSe 활

용 연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AI 플랫폼 주요기능 소개, 활용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활용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전북 EBSe 활용교사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EBSe 콘텐츠를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개별 학교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례 나눔을 통해 양질의 EBSe 콘텐츠를 적극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수업 나눔 통한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도교육청, 수업혁신 특강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대상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수업혁신'에 집중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9일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수업혁신 특강을 운영했다.

이날 특강은 수업분석·수업나눔의 권위자인 청구교대 이혁규 교수를 초빙해 '수업나눔을 통한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수업나눔이란 '수업 전 협의·수업공

개(참관)·수업 후 협의' 등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말로, 현장의 교원들은 공동의 지혜를 모아 수업을 연구·설계·분석·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혁신을 이룬다.

특강에는 사전 신청한 교원 450명이 참석했으며, 신청접수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마감됐을 정도로 수업혁신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에 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는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원과 협업해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결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펼쳤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수업혁신 지원단 단위학교 수업나눔 교사연수회 창

의·융합수업 실천학교, 수업혁신 기본·심화 연수, 지역 중심 수업나눔 공동체, 수업혁신 자경력 교사 연수, 수업나눔 선도교사 등의 지원도 펼친다.

각각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함으로써 전북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기여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수업'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혁신은 수업혁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학생들을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길러낼 수 있도록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